

출판관계 간행물 다양하게 선보인다

각종 도서전문지 잇달아 출간... '책에 관한 책'으로 독자들 관심 끌어

낮선 곳의 여행에 지도가 유용하듯 책으로 이끄는 각종 정보지는 숲한 책 사이에 선 독자를 밀도있는 책읽기로 안내한다. 최근 잇달아 선보인 책관련 잡지들은 단순한 신간소개를 넘어 독자의 구미를 당기는 풍부한 읽을거리로 책과 독자를 밀착시키고 있다. 외국에 비해 도서전문지가 뿌리내리기에 그 텃밭이 너무나 척박한 우리에겐 깔끔한 모양새와 친근한 우리말 제호의 책관련 간행물들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나침이 없는 듯"하다.

대중독자 겨냥한 독서교양지 등 창간

현재 책읽기를 돕는 관련지들은 출판사나 서점, 출판인모임 등에서 퍼내는 십여종을 꼽을 수 있다. 일반독자를 위한 순수교양지의 성격이 짙은 것에서부터 대형서점에서 사보형식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출판사 홍보용 안내책자 그리고 출판관련모임들의 개성을 살린 간행물에 이르기까지 구성은 다양한 편이다.

그 가운데 3월호로 창간한 「책과 인생」(범우사)은 대중독자를 겨냥, 책읽는 즐거움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본격 독서교양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고답적인 편집이나 엄숙주의를 지양하고 폭넓은 대중독자층과 호흡을 같이함으로써 독서인구의 증대와 출판시장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 걸맞게 일체의 전문서평은 배제하고, '책모으는 재미' '다시 읽고 싶은 책' '나를 철학도로 이끈 한권의 책' '출판사를 움직인 책' '번역의 뒤안' 등 책과 인연 맺은 사람들이 지녔던 열정과 외로움, 운명을 개성적인 에세이로 엮어보인다.

반면 '서울출판인클럽'이 책만드는 전문적

업의식에 강조점을 두고 창간한 무크「책과 사람」은 출판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자신의 이야기와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특수독자층의 강한 흥미를 끌어당긴다. 출판계 주요 이슈의 집중토론이나 연구논문 등 무거운 주제와 함께 출판인들이 회고하는 뒷이야기 같은 흥미로운 읽을거리도 풍부한 편이다.

책의 정보라는 측면을 강조한 독서전문지로는 「독서신문」이 지금까지 1053호를 기록해 역사가 깊다. 문학시론, 출판뉴스, 작가 주변 이야기 등 출판과 책소식 내용을 24면에 담은 일요판 주간지. 2만5천부 발행으로 가판 없이 도서관이나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보급한다.

새로 나온 책을 신속히 알린다는 취지의 「새책소식」(한국출판유통정보사)은 속보성을 모토로 하는 격주간지. 납본자료를 토대로 한 신간목록의 분류별 소개와 함께 '자세히 읽기' '전국베스트셀러'의 자료도 실는다. 일단 안내 정보에 충실하지만 점차 일반인들의 취향도 반영할 예정. 3만부 가운데 2만부는 서점용, 나머지는 출판사, 독자에게 정가 500원에 판매한다.

단순한 독서정보지를 넘어서 '좋은책을 권장하는 의미의 안내지'를 표방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서평문화」는 현재까지 4집이 발간됐다. 「책의 공해를 추방」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문서평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엄선된 책만을 다루는데 '문학예술' '역사전기' '교양' '생활과학' '쟁점도서' 등 부문별로 실린 서평은 비판적 관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도 특징.

한편 도서유통 관련업계에서 퍼내는 도서정



국내 출판관련 간행물들.

보지도 또다른 성격으로 자리한다. 도매서점 진명서적(대표 최선호)에서 87년, 신국판의 부정기간행물로 발간해 89년 봄(통권9호)호부터 계간지로 등록, 4×6배판으로 판형을 키워 꾸준히 독자서비스를 하고 있는 「책마을」은 올봄 21호까지 발간됐다. 오랫동안 신간안내 배본·발송·재고도서처리 등에 문제점을 느꼈던 도서도매업자의 입장에서 지방서점과의 신속한 도서정보 교환의 필요성에서 출발. 출판의 특성에 맞춰 매호 '서점순례와 출판사탐방', 유통문제나 서점계를 진단하는 기획특집 기사를 비중있게 다룬다. 3만부 발행에 2만부가 지방서점으로 발송, 위탁배포로 일반독자에게 전해진다. 신속한 정보를 위해 월간으로 발행기간을 단축시킬 계획도 고려중.

유통전반, 책흐름에 대한 관심은 한국출판협

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이 회보로 퍼내는 「책과 함께」에서도 엿보인다. 조합의 소식과 함께 입고된 신간목록을 십진분류해 「새로들어온 책」이라는 소책자로 만들어 배포한다. 지방서점에서는 책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목록을 받아보므로 무슨 책이 나왔는지 신속히 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환영하는 편. 지금까지 4호가 발행됐으며 20면 내외에 2000부 찍는다.

도서유통구조의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도서유통개선협의회(회장 이호림)에서 90년부터 월간으로 발행하는 「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도서유통문제를 다룬다. 처음에는 회원사들의 신간을 알린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건전한 도서유통을 이끌기 위해 '양서'만 '선별' 소개, 순수독서운동을 지향한다는 설명이다. 읽을거리를 확충하고 고경칼럼 등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 1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지구대기행 ①②

46억 년 전의 지구 탄생에서부터 미래의 지구 모습까지, 광활한 우주에서 경이로운 땅 속 세계까지, 비밀에 감춰졌던 지구의 역사와 신비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대기행」과 함께 그 신비를 풀어 나가세요!

•히키노 신지 지음/ 임종한 옮김/ 258쪽/값 3,000원



인체대기행 ①②

복잡하고 신비롭기 짝이 없어 '소우주'라고까지 하는 우리의 몸, 인체, 이제 우리 몸 속의 구조와 신비를 만화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한 「인체대기행」을 만나보세요. 재미있게 읽다보면 어느새 의학박사(?)가 됩니다.

•히키노 신지 지음/ 임종한 옮김/ 258쪽/값 3,000원



“저작권 국제협약 새 조정 필요하다”

「지식의 국제유통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내용을 다양하게 꾸며 지금의 3만5천부에서 5만부까지 늘리는 게 목표.

한편 대형서점에서 독자서비스용으로 발간하는 대표적인 소식지로는 서울의 「종로서적」과 「교보문고」를 들 수 있다. 각각 78년, 81년에 창간돼 지금까지 53호와 69호까지 발간, 매장고객들을 위해 무료배포하고 있다. 지방서점으로는 대전의 대훈문고에서 89년 4월부터 「책과 사랑방」이라는 제호의 소식지를 간행하고, 대구의 제일서적에서 사보형식의 「제일서적」을 86년 12월부터 펴내고 있다. 출판회계와 에세이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는데, 특히 지방서점의 특성에 맞게 지방작가의 칼럼이나 작품, 지방서점소식과 문화행사 등의 비중이 크다. 「책과 사랑방」은 36면, 「제일서적」은 80면으로 각각 1만부와 4만부가 은행, 관공서를 포함해 매장독자에게 무료배포된다.

정보전달 민활한 소식지 필요

출판사에서 적극적인 홍보차원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는 거의 없는 편인데, 87년 7월부터 계간으로 발간하는 책세상의 「책세상 소식」은 팜플렛 형태의 소책자지만 짹짹 읽을거리로 꾸준한 독자의 애정을 받는 경우다. 자사에서 나온 신간을 화제 중심으로 엮는 것 외에 독서실, 서점탐방, 필자소식 등 캠페인성 기사로 독자들의 책임기를 유도한다.

“생각보다 출판사들이 독서운동 차원에서 펴내는 소식지는 적다. 독서인구가 적다고 탄식만 하기보다 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서비스하겠다는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다”는 호영송주관은 2만5천부 찍는 지금의 소

식지를 정기간행물로 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드물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독서운동을 위해 펴내는 잡지도 찾아볼 수 있다. ‘좋은책읽기가족모임’(강남구 삼성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무료도서관을 운영,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좋은책읽기를 권장하는 모임. 작년 11월에 「책보따리」라는 잡지를 창간해 모임을 새롭게 활성화시켰다. 이 모임이 개설한 마을도서관 현장스케치 등 활동소식과 함께 ‘폐기처분되는 책’의 현장리포, 책이 있는 에세이와 신간소개 등을 46명의 변형국배판에 담아 무료로 배포해 조용한 독서운동의 한자리를 담당한다.

이같은 출판관련 간행물들은 타업종의 그것에 비해 매우 소박한 면모들이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것은 계간이 대부분이고 월간조차 드물다. 결국 정보전달이 민활하지 못해 새책이 나온 지 한두달, 늦게는 서너달 후에야 ‘신간안내’란에 소개되기도 한다. 또 대부분 출판사와 서점의 광고협조로 제작되는 무가지인 점도 간행물의 소박함을 예전 수준으로 머물게 하는 요인이다.

요컨대 투자가 없는 도서정보지에서 신속한 정보나 알찬 내용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 최근의 몇몇 잡지들이 개성적으로 독자들의 시험대에 오른 것은 이제 우리 독서문화가 계몽의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전조로 읽혀진다. 출판관련 간행물도 세련된 모양새로 좋은 책에 관한 더욱 섬세하고 참신한 소개방법과 주제개발에 생각을 모아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책임기는 더이상 여백의 문화가 아닌 일상이기 때문이다. — 김지원 기자

지식정보의 전달과 국제유통 문제가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지식의 국제유통 문제에 주목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전영표교수(신구전문대 출판과)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이 연구는 지식의 이전과 확산의 차원에서 모든 저작권관계 법제도는 지식정보유통에 장애가 없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규나 협약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추세여서 정보유통이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저자는 세가지 문제의식을 논의의 출발로 삼는다.

첫째는 ‘저작권은 재산권보다 인격권인 저작자의 메시지나 저작정신의 확산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협약 중에는 지식정보의 국제적 유통을 지연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들어 있지는 않은가.’ 셋째 ‘지식의 소유권 주장이 결과적으로 국제적 정보유통과 지식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의 관계 및 정보유통에 따른 각국간의 지식격차 등을 설명하고, 현재 국제저작권법으로서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의 보호 원칙을 살피면서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저작물을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와 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임을 밝힌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 발전과정을 사

례별로 검토하고, 한국의 저작권 개념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살피면서 87년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 개편한 한국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이원론적 체계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 저작권법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특히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와 체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정보, 지식의 독점현상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는데, 따라서 저작권은 재산권보다는 인격권을 중시해야 하고, 저작자의 문학정신이나 철학사상 이론을 확산 보급하는 문화이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이라는 체제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지식정보 전달이 늦거나 이전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작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아이러니라는 것. 그런 점에서 저작자의 생존기간이나 사후 50년까지의 저작권 보호 규정 등 현행 저작권의 보호규정은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서도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디자인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어름새벽은 알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들의 정성과 노고가 깃들여 있습니다. 지은이나 옮긴이의 불면의 시간들, 기획·편집자의 꿈과 현실, 디자이너의 초조와 좌절, 제판·인쇄·제본 과정의 압박, 영업자의 순수한 땀과 정교한 계획 그리고 독자들의 정직한 평가를 통해 한 권의 책은 완성됩니다.

●어름새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쁨이 되지 않는 출판계의 불황, 예측하기 어려운 독자들의 변덕,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시간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름새벽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때문에 책이 성공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정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름새벽의 디자인이 그 모든 이들의 정성과 노고를 더욱 돋보이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표지·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단행본·잡지·사보편집대행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62-63 전화/325-4963·4 팩스/325-4965